



(주)현대축산

축사 자동화 분야 선도 기업

ICT융복합 제품 개발에 앞장

축산 농가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력을 줄여주는 축산자동화시스템은 미래 축산업을 위한 기술로써 관심받아 왔다. 특히 정밀한 사료 급이량이 필수시 되는 모돈, 산란계 등의 자동급이시스템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사료 허실을 방지함으로써 농가의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현대축산은 업력 40여 년을 자랑하는 축산자동화시스템 전문업체로서 이미 많은 축산 농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대표 축산기자재 기업이다.





40년 업력...노하우와 기술력 인정받아

축산기자재 전문업체인 현대축산은 1980년 창업했다.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현대축산은 창업 이래 40여 년 동안 기술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국내 기자재 업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함은 물론 정부에서도 인정 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축산용 자동급이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이 분야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현대축산은 축산용 자동 급이 시스템 및 모든 부품에 따른 제작의 공정 자동화와 최상의 재질로 완벽한 시공까지 전문화된 기술 및 종합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현대축산은 최근 축산 농가들에 관심이 뜨거워 ICT 접목 한우 양돈 ICT 자동급이기도 공급하고 있

다. 축산 농가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방역, 환경 등은 축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로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ICT 축산기자재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제품들이다. 김성호 대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최적의 사양 관리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며 “축산 농가들이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현대축산도 고품질 ICT 제품을 원활히 공급해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ICT 융복합 제품 개발에 앞장서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사료계량통 업그레이드...청소구 추가

현대축산은 고객의 입장에서 꾸준히 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자동급이기에 청소구를 추가한 업그레이드 사료 계량통을 선보였다.

자동급이기는 농가가 사료를 가축에게 자동 급이 함으로써 사료 허실을 방지하고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단축시켜 관리능력이 향상되므로 경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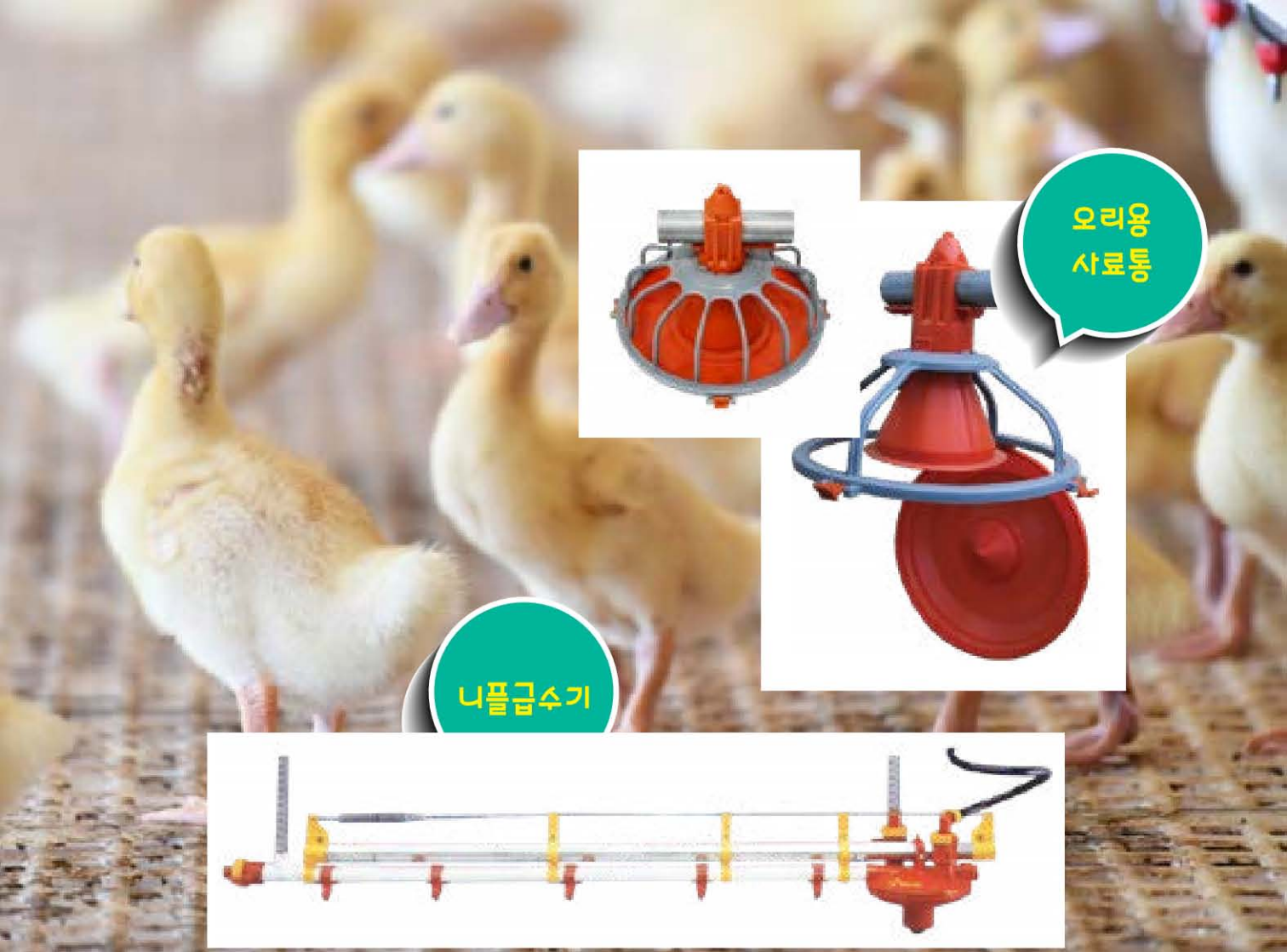
여기에 현대축산은 농가들의 편리하게 계량통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입구를 계량통에 추가했다.

사료가 운반되면서 생긴 정전기는 사료 계량통 벽면에 사료 가루가 붙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 급이기를 통해 정밀하게 급이 되던 사료량에 오차가 생김은 물론 이것들이 쌓여 곰팡이가 증식되는 등 사료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사료 계량통의 축적된 사료 잔여물들을 중간중간 청소해줘야한다.

김도형 팀장은 “정확한 양의 사료를 최상의 품질로 급이 하기 위해선 깨끗한 사료계량통의 유지가 필수적인데 기존의 사료계량통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했다. 현대축산의 사료계량통은 청소구를 추가해 작업자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청소구를 통해 깨끗하게 지속된 사료계량통은 가축의 생산성을 높여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축산은 최근에 염소와 사슴 자동급이기가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염소와 사슴 사육농장이 규모화·기업화하는 추세에 따라 디스크 타입 500, 630 제한 급이 시스템을 공급한다. 중소 가축용 제한 급이기는 500g~3.8kg까지 조절 가능해 사료 허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성도 우수해 농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김 팀장은 전했다.



오리용
사료통

니플급수기

차별화된 제품개발과 고객 만족 위한 고민 이어나갈 것

10대 때부터 가축약국에서 근무하며 축산업에 발을 들인 김성호 대표는 50여 년 축산 외길 인생을 살아 오며 우리나라 축산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이것만은 축산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이슈, 환경문제 등 축산이 설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축산 농가와 기업들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 말했다.

김 대표는 “축산 농가는 줄어들지만, 기업화에 따라 축사 시설 자동화에 대한 니즈는 증가할 것으로 본

다. 특히 국내 축산은 지나온 시간 만큼이나 끊임없이 발전했다. 기술의 격차가 벌어진 만큼 축사 시설 교체의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이때 현대축산은 현대축산만의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고객 만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팀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축산기자재 자체도 발전했으나 차별화된 디자인 및 기술이 없다 보니 축산 농가 입장에서 선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ICT 기술 접목 제품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의 니즈를 고민하고 기자재에 접목해 축산업에 효과적인 축산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